

장성에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

부지면적 4만5천㎡... 256억 들여 2016년 완공

장성군에 호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농산물 비축기지가 들어선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2016년까지 총 2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장성을 유당리 일원에 부지 면적 4만4348㎡, 건축 연면적 9917㎡ 규모로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가 건립된다. 농산물 비축기지만 정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

한 저온창고로서 현재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12개소의 비축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축기지의 노후화가 심해 가동률이 저조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저온창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 수도권을 제외한 8개의 비축기지를 4개로 통합하는 '비

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호남권 비축기지의 최적지로 장성군이 선정된 이유는 대도시인 광주시가 인접하고 호남·서해안고속도로와 KTX 등 사통팔달 교통 및 지리적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상당한 고용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비축기지가 옆 부

지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농업 호남권물류센터 건립과 맞물려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비축기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비축기지 설치로 인해 늘어나는 물동량과 근무 인원으로 지역 내 새로운 활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태아를 위한 '숲 태교'

지난달 30일 장성군의 '숲을 통한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임신부들이 축령산을 찾아 탐방하고 있다. 장성군은 산모의 심신안정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태아에게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공교육 배우자” 타 시도 잇단 벤치마킹

담양군의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배우기 위한 타 시도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군은 민선 5기 들어 3년여 동안 7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선 학교,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교육 살리기'에 주력해왔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 장수교육지원청 소속 관계자와 면장, 유관기관 대표 등 40여명이 방문해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과 지역교육 협력 활성화 등 공교육 전반을 배우고 돌아갔다.

이번 방문을 준비한 장수교육지원청 김진성 장학사는 "장수군과 담양군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교육 여건과 인구 대비 지자체 지원 교육예산도 비슷하다"며 "담양의 방과 후 학교 교육 체계가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지역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담양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강진 천연 잔디구장 '모래 구장' 전략

관리 부실 잔디 고사 예산 낭비

강진군이 거액을 들여 조성한 천연 잔디구장 내 잔디가 고사하면서 '모래 구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잔디를 보완 식재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고가의 잔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십억원을 들여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에 4면의 인조구장과 사계절 천연잔디 잔디 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 종으로 시설된 다산·영랑·하멜구장 등 3면 등 총 7개 축구구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조구장만 일부 잔디 현판팀이 사용하고 있을 뿐 천연 잔디구장은 잔디 고사로 인해 일부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군은 그동안 매년 8000만원을 들여 잔디관리위탁을 영업체에 위탁을 맡겨 왔지만 2년 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직접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병충해 방제 등 기술력 부족



강진군이 지난 2005년 조성한 천연잔디구장이 관리 부실로 잔디가 고사해 '모래구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나치게 고가의 잔디를 식재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으로 지난해 잔디 보완 식재에만 1억여원을 썼으나 잔디 고사를 막지 못했다. 시공업자들은 현재 3개면 깔려 있는 잔디 블루그라스가 m당 조성비가 4만원에 달해 3개 면(2만4000㎡) 전체를 재시공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이 대규모 청자도에춘에 3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청자미로

육 역시 잡초만 무성한 채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등 군의 시설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5도가 넘으면 고사되는 잔디 특성상 50여일간 계속된 더위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내년 예산에 보완 식재 예산을 반영하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관광도시 영암' 인지도 높인다

郡, 월출산·기찬랜드 등 자원 활용 개발계획 수립

영암군이 지역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바둑테마파크 등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을 정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 관광정책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군은 조만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 기찬랜드 등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전체의 '관광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왕인박사 유적지, F1국제 자동차경주장 등 다양한 관광매력 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지 못해 관광인프라에 대한 당장점 및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위한 지역 전체의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에 대한 당장점 및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위한 지역 전체의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용역의 범위는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 전역을 대상으로, 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이다. 또 바둑테마파크 등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존 축제의 경쟁력과 상품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큰 바위 얼굴'로 널리 알려진 월출산 장군봉의 스토리텔링 등 문화콘텐츠 발굴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 등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전주 '슬로시티'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옥 건축 1층 이하

전주시는 2일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 하고 있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권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 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 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한옥마을 내에는 지난 2011년 '슬

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05곳으로 3년 만에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점 55곳, 커피숍 28곳, 전통찻집 17곳, 공예공방 70곳, 숙박시설 68곳 등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자칫 전주 한옥마을이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등 국제슬로시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권순=박승석기자 전복취재본부장

전북



맛·향 좋은 흥부굴 포도

지난 여름 무더위를 이기고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남원 흥부굴 포도가 최근 본격 출하되고 있다. 9월 말까지 수확되는 흥부굴 포도는 해발 400~600m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부안 하서면 지식모 선사문화권역

전북형 슬로시티 지정 기대

추진위·주민, 워크숍 개최

부안군이 하서면의 지식모 선사문화권역을 전북형 슬로시티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슬로시티 선정에 따른 조성사업에 완료될 경우 해당 권역의 각종 자원의 가치를 보존·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일 '지식모 선사문화권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하서면 사무소에서 슬로시티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슬로시티 예비지구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슬로

시티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식모 선사문화권역은 지난 6월 전북형 슬로시티 예비지구로 선정돼 올 연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식모 선사문화권역은 사적 103호인 남방형식 구암리 지식모군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권이 유사한 석상리 5개 마을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원회는 전북형 슬로터 지정을 위해 주민교육과 지역공동체 조직 및 운영,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지식모군 및 선돌 유적지 정비와

구암·석상 간 탐방로 개설, 체험·학습장 및 숙박시설 조성, 각종 정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모 선사문화권은 고인돌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지가 널리 분포돼 있어 슬로시티 조성 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체험·학습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표고버섯, 블루베리, 오디 등 지역특산물의 직거래 및 인터넷 판매도 늘어 지역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슬로시티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연자원의 가치 활용 등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단신

남원, 인허가 창구 일원화 복합민원팀 가동

남원시는 이달부터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복합민원팀은 건축지원담당을 팀장으로 해 도시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민원담당자를 팀원으로 운영기로 했다. 복합민원팀은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민원실무심의회를 열어 의견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복합민원팀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원인이 심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로 운영기로 했다. 복합민원팀은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민원실무심의회를 열어 의견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복합민원팀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원인이 심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 인계면 주민자치센터 지난달 개소

순창군 인계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난달 30일 개소했다. 인계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위원 신청을 받아 고문 2명과 위원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인계면과 협조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노년교실과 요

가교실을 매주 2회씩 운영하며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주민 자치는 정부기관 주도자치에서 주민 주도 자치로 가는 길"이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시민참여대회·창업공동체 발표회

정읍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정읍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이틀에 걸쳐 '2013 정읍시민참여대회 마을공동체 및 창업공동체 뿌리단체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풀기단체 실행팀을 각각 4팀씩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부문에서는 대상에 '산내면 자연동마을', 최우수상에 '신대면 용서마을', 우수상에 '대인면 박사마을', '산외면 여우치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또 창업공동체 부문에서는 대상에 '정읍시 발효효소관리사업팀', 최우수상에 '다모이아기' 등 4개팀이 뽑혔다. 시는 이들 공동체에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우수상에 '대인면 박사마을', '산외면 여우치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또 창업공동체 부문에서는 대상에 '정읍시 발효효소관리사업팀', 최우수상에 '다모이아기' 등 4개팀이 뽑혔다. 시는 이들 공동체에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청보리·찰보리 아이스빵 지역개발 기대

고창군은 2일 "2013년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사업 중 하나인 '고창 청보리와 견과류 이용 찰보리 아이스빵 및 믹스개발'이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 청보리와 견과류 이용 찰보리 아이스빵 및 믹스 제품'은 찰보리

에 맥류와 팥, 두류 등을 섞어 가공한 것이다. 찰보리는 보통 보리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식이섬유 일종인 베타글루칸(β-glucan) 성분이 쌀의 50배, 밀의 7배가량 많아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수능시험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부안, 이주여성 5명 대입 검정고시 합격

부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이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진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일 '학력취득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 5명이 고입검정고시 합격 후 고졸(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중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검정고시에 합격한 조혜숙(43·중구)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4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 학업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며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력취득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가져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력취득지원사업을 통해 고입반 10명, 고졸반 7명을 지원하고 있다.